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2.287>

JCCT 2024-3-35

##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대상자 옹호, 직업 가치 및 인간중심돌봄 간의 관계분석

###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target advocacy, work value, and person-centered care

송지아\*, 오재우\*\*

Ji Ah Song\*, Jae Woo Oh\*\*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 옹호, 직업 가치 및 인간중심돌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간호대학생을 위한 근본이념 향상을 교육자료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이었다. D시와 S시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본 연구에 참여 동의한 간호대학생 172명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대상자 옹호 및 직업 가치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3.5%였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실천 간호역량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로서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정도를 확인하고 긍정적인 직업 가치관 형성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개발 및 간호의 근본이념인 대상자 옹호 인식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대상자 옹호, 직업 가치, 인간중심돌봄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arget advocacy, work values, and person-centered care among nursing students, and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to improve fundamental ideology for nursing students.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July 1 to July 31, 2023. The questionnaires of 172 nursing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universities located in cities D and S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nfluential factors on nursing students' person-centered care were target advocacy and work values,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23.5%. In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nursing students' competence in person-centered ca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extent of their work values as nurses, compare and develop programs for the formation of positive work values, and improve their awareness of target advocacy, which is the fundamental philosophy of nursing.

**Key words** : Nursing students, Person-centered care, Target advocacy, Work values.

#### 1. 서론

최근 들어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 미디어 활용 증가, 질병에 관한 지식이 증가하면서 환자 권리의 요구와

\*정회원,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제1저자)  
\*\*정회원,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1월 5일, 수정완료일: 2024년 1월 27일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3일

Received: January 5, 2024 / Revised: January 27, 2024  
Accepted: February 3, 2024  
\*\*Corresponding Author: ojw77@konyang.ac.kr  
Dept. of Nursing, Konyang Univ, Korea

보호가 중요시되고 있다[1]. 환자의 권리 주장과 알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간호사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 옹호간호(Nursing advocacy)는 간호사와 대상자의 긍정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위로서, 불리하고 약자 입장에 있는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간호사가 수행하는 활동이다[2]. 최근의 옹호 간호는 취약한 개인 및 지역사회의 최적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 정책에 관여하는 것으로도 정의되며[3], 환자뿐 아니라 사회정의, 정책 옹호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개념이 부각되면서 옹호간호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옹호간호는 환자의 치료 중 인권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과잉수가 등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요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직접중재, 대변과 같은 간호사의 간호를 통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환자의 안전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4,5]. 또한 간호사는 실무에 대한 확실감을 갖게 되어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6]. 간호사와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옹호간호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간호의 근본이념인 인간중심돌봄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중심돌봄이란 환자들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환자들 개인의 가치와 능력을 존중하고 자율성, 자존감, 독립성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인식과 실천을 뜻한다[7,8]. 인간중심돌봄은 환자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인 총체적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9], 낙상사고 감소, 사망률 감소, 응급 상황 감소, 투약오류 감소, 감염률 감소 등 환자 안전에 대한 개선 및 일상생활능력의 손실 발생률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또한, 인간중심돌봄은 환자와 종사자 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치료과정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상호 협력을 촉진하게 됨으로써[11], 환자의 돌봄의 질을 향상 시키고 환자안전을 개선시킨다고 강조하고 있다[12]. 이러한 대상자 옹호 및 인간중심돌봄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취약한 대상자를 위한 간호사의 중요한 자세 및 활동으로서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도 필수적인 의료인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2]. 하지만, 최근 심각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취업률로 인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의 과정 없이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늘고 있으며

[13], 자기 자신 및 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전공을 선택하여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진로 불만족, 단기 이직, 조기 퇴사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14]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간호대학생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직업선택을 하고, 선택한 직업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자신이 생각하는 일의 목적과 의미를 진로목표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15].

즉 직업가치는 직업과 진로에 대한 가치로써 [16] 특정 직무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한 개인이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이며 개인의 삶과 진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17]. 직업가치가 개인의 직업과 관련된 만족이나 안녕감의 요인인 점을 감안할 때, 간호대학생이 간호 전문직에 대해 인식하는 가치는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근본이념인 대상자 옹호간호 및 인간중심 돌봄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나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간호학의 최근 추세가 인간중심돌봄을 어떻게 구현하고 유지 가능하게 할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18] 우리나라는 아직 인간중심돌봄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고 인간중심돌봄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과 정책 노력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19].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대상자 옹호간호, 직업가치 및 인간중심돌봄 간의 관계 및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의 근본이념 향상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대상자 옹호, 직업 가치가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

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예측 요인의 수 9개,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50, 검정력 .95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66명이었고,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8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들에게 구체적인 연구 목적과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후,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 대상자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설문지의 응답이 완전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172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대상자 옹호

Bu와 Wu[6]가 대상자 옹호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한 간호사의 대상자 옹호 태도 측정 도구를 Kim과 Lee(2021)가 번역 후 수정 보완한 도구[16]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율성 보호(Safeguarding patients' autonomy) 28문항, 대상자 편에서 행동(Acting on behalf of patients) 17문항, 사회정의 옹호(Championing social justice in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19문항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 6점으로, 총 점수는 최저 64점에서 최고 384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옹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7, 선행 연구[16]에서 Cronbach's  $\alpha$ 는 .9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97(자율성 보호 .94, 대상자 편에서 행동 .95, 사회정의 옹호 .94)으로 나타났다.

#### 2) 직업가치

직업의 가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이현림(1991)이 번역한 Super(1970)의 일의 가치 검사(Work Value Inventory : WVI)를 사용하였다. 직업의 가치에 대한 피험자의 태도와 일의 가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8개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가치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은주(2005)의 연구에서  $\alpha$ 는 .95로 나타났다. 정은주(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5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6으로 나타났다.

#### 3) 인간중심돌봄

본 연구에서 인간중심 돌봄은 Edvardsson 등 (2010)이 개발한 장기 요양 노인 을 간호하는 직원의 인간중심돌봄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인 Person-centered Care Assessment Tool (P-CAT)를 탁영란 등(2015)이 한국어판으로 수정·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3문항으로 개별화된 돌봄 7문항, 조직적 및 환경적 지지 6문항의 2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5개의 부정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중심돌봄의 실천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탁영란 등(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으며[7],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다.

####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 전 연구 진행에 관해 K대학 기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KYU 2023-04-033-002)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D시와 S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방문하여 해당 학과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얻은 후 학과 게시판에 허락된 기간 동안 모집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설문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자료의 익명성을 확인하도록 하였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후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과 아울러 중도 철회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을 안내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은 20분이었으며, 연구 참여자에게는 2000원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무기명으로 하였고, 대상자를 코드화하여 분석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대

상자 옹호, 직업 가치 및 인간중심돌봄 정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 옹호, 직업 가치 및 인간중심돌봄은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대상자 옹호, 직업 가치 및 인간중심돌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3.16세이었으며, 여성 140명(81.4%), 남성 32명(18.6%)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이 82명(47.7%)로 가장 많았으며, 4학년 52명(30.2%), 3학년 38명(22.1%)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는 대상자가 101명(58.7%)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 선택 이유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학생이 74명(43.0%), 취업률 52명(30.2%), 부모님의 권유 35명(20.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대상자는 98명(57.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보통 61명(35.5%), 불만족 13명(7.6%)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대부분인 152명(88.4%)은 졸업 후 종합병원 급 이상 병원에 취업을 희망하였다<Table1>.

#### 2. 간호대학생의 대상자 옹호, 직업가치 및 인간중심돌봄의 정도

호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대상자 옹호, 직업 가치 및 인간중심돌봄 점수는 다음과 같다<Table 2>. 대상자 옹호는 6점 만점에 4.93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항목 중 사회정의 옹호가 4.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상자 편에서 행동 4.93점, 대상자의 자율성 보호 4.89점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가치는 5점 만점에 4.22점으로 나타났으며, 인간중심돌봄은 6점 만점에 3.41점 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2)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 ± SD or n (%)
Age (years)		23.16±6.37
Gender	Male	32(18.6)
	Female	140(81.4)
Grade	2	82(47.7)
	3	38(22.1)
	4	52(30.2)
Religion	Yes	71(41.3)
	No	101(58.7)
Major selection	Parental encouragement	35(20.3)
	Want to be a nurse	74(43.0)
	Got a good job	52(30.2)
	Others	11(6.4)
Major satisfaction	Unsatisfied	13(7.6)
	Moderate	61(35.5)
	Satisfaction	98(57.0)
Hopeful careers	University hospital	80(46.5)
	General hospital	72(41.9)
	Others	20(11.6)

표 2. 간호대학생의 대상자 옹호, 직업가치 및 인간중심돌봄의 정도

Table 2. Perception of target advocacy, work value, and person-centered care of participants

(N=172)

Variables	Range	Mean±SD
<b>Target advocacy</b>		<b>4.93±0.59</b>
Safeguarding patients' autonomy	1-6	4.89±0.61
Acting on behalf of patients		4.93±0.73
Championing social justice		4.98±0.64
Work value	1-5	4.22±0.60
Person-centered care	1-5	3.41±0.41

#### 3. 간호대학생의 대상자 옹호, 직업가치 및 인간중심돌봄간의 관계

본 연구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간중심돌봄은 대상자 옹호 하위 변수인 대상자의 자율성 보호, 대상자 편에서 행동, 사회정의 옹호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업 가치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 가치는 대상자 옹호 하위 변수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표 3 간호대학생의 대상자 옹호, 직업가치 및 인간중심돌봄 간의 관계

Table 3 Correlations among target advocacy, work value, and person-centered care

(N=172)

Variables	Target advocacy			Work value	Person-centered care
	Safeguarding patients' autonomy	Acting on behalf of patients	Championing social justice		
Safeguarding patients' autonomy	1				
Acting on behalf of patients	.731** (<.001)	1			
Championing social justice	.714** (<.001)	.788** (<.001)	1		
Work value	.544* (<.001)	.516** (<.001)	.620** (<.001)	1	
Person-centered care	.391** (<.001)	.419** (<.001)	.344** (<.001)	.423** (<.001)	1

\* $p < .05$  \*\* $p < .01$  \*\*\* $p < .001$

#### 4. 간호대학생의 대상자 옹호 및 직업가치가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2.231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자기 상관이 없이 독립적이었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요인)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1.000~1.374로 기준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4>. 자료 분석 결과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하게 나온 학년을 더미 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대상자 옹호 하위 변수인 대상자의 자율성 보호, 대상자 편에서 행동, 사회정의 옹호와 대상자 취약성, 직업 가치를 독립변수로 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업 가치( $\beta = .337$ ), 대상자 편에서 행동 순( $\beta = .226$ )으로 나타났다. 직업 가치가 인간중심돌

봄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0.2%이며, 대상자 편에서 행동이 추가되어 전체 설명력은 23.5%으로 나타났다. 직업 가치( $B = .223$ )와 대상자 편에서 행동( $B = .124$ )의 점수가 높을 수록 인간중심돌봄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표 4 간호대학생의 대상자 옹호, 직업가치가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person-centered care

(N=172)

Variable	B	SE	$\beta$	t	p	VIF
Constant	1.848	.214				
Work value	.223	.052	.337	4.270	<.001	1.374
Person-centered care	.124	.043	.226	2.862	.005	1.374

$R^2 = .244$ ,  $Adj.R^2 = .235$ ,  $F = 26.923$ ,  $p < .001$

##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의 최근 추세가 인간중심돌봄을 어떻게 구현하고 유지 가능하게 할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18]. 이에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대상자 옹호, 직업 가치 및 인간중심돌봄 간의 관계 및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의 근본이념 향상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의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연구의 주요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대상자 옹호는 6점 만점에 4.93점으로 보통이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 옹호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나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 Lee(2021)의 연구 결과 4.64점[20] 및 Kim & Choi(2023)의 연구결과인 4.72점[21] 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로서 간호학과 재학생인 간호대학생의 경우 인간의 기본권 및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간호의 근본이념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에 의한 영향이라 생각된다. 또한 간호의 철학적 바탕인 대상자 옹호는 점차 이론적 개념에서 벗어나 실천적인 간호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22] 간호대학생의 대상자 옹호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학과 차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직업 가치는 5점 만점에 4.22점으로 간호사에 대한 직업가치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승호(2021)의 연구결과인 4.19점[23]과 유사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가치관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를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24]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경우 간호학과 선택의 이유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수와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수가 많아 나타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 인식 향상을 위해서는 전공만족도 향상을 통해 긍정적인 직업가치관 형성을 위한 방안 및 입학시부터 간호학과 선택동기를 확인하고 선택동기에 따른 직업가치관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간중심돌봄은 6점 만점에 3.41점으로 보통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결과는 아니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오재우와 김미란[25]의 연구결과인 평균 평점 3.06(44.6)과 유사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살펴본 스페인 평균 47점[26] 및 스웨덴 평균 48.8점[27]으로 선행연구보다 본 연구결과의 경우 인간중심 돌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자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인간중심돌봄 평균 점수가 낮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추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의 기본 철학인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자세 및 인식을 함양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인간중심돌봄은 대상자 옹호 및 직업가치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간중심돌봄, 대상자 옹호 및 직업가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나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직업가치관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이숙연[28]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인간중심돌봄이란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독립성, 자율성, 자존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의 인식과 실천을 포함한 총체적인

돌봄을 의미하는데[8] 이러한 인간중심돌봄은 환자에게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어 간호학에서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Morgan & Yoder[9]은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간중심돌봄은 환자와 간호사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환자가 중심인 치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간호사의 상호협력을 촉진시켜주며[11] 그 결과 인간중심돌봄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돌봄의 질과 대상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대상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하였다[9]. McCormack과 McCance[29]의 인간중심돌봄 이론에는 간호사의 특성에 중점을 둔 전제조건인 간호사의 전문적 역량이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요인을 말하는데 이러한 요인은 간호사로서 가지는 직업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서는 대상자 옹호에 대한 인식 향상 및 긍정적인 직업가치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업 가치( $\beta=.337$ ), 대상자 편에서 행동 순( $\beta=.226$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3.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간중심돌봄 영향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인간중심돌봄이란 돌봄을 받는 개인이 존중되고 개별화되며, 건강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치료적 관계를 통해 선택권을 가지는 총체적 접근 방식으로[9], 인간중심돌봄의 속성은 '전체론적, 개별화, 존중 및 권한 부여'[9]이므로 간호사는 대상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인 인간은 생물학적, 사회적, 정신적 측면을 가진 전체론적 존재이고[30], 돌봄이 제도적 기준이나 일상이 아닌 환자의 개인적 필요와 선호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31], 개인은 자신의 돌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32]는 강조하면서 인간중심돌봄 간호를 위해서는 대상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간호사 역시 직업가치관이 중요시 되는 직업으로서 Kalleberg[33]는 직업 가치관을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라고 하였으며, 임연 외[24]는 직업가치관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를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것으

로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이므로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직업가치관은 인간중심돌봄 간호 실천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유추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신천 간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로서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정도를 확인하고 긍정적인 직업가치관 형성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개발 및 간호의 근본이념인 대상자 옹호 인식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 옹호, 직업가치 및 인간중심돌봄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대상자 옹호 및 직업가치가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대상자 옹호 및 직업가치가 인간중심돌봄의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간호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대상자옹호 및 직업가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 옹호자로서의 인식향상 및 역할 증진을 위해 대상자 옹호를 위한 임상사례 기반 시뮬레이션 실습과 같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간호사로서의 직업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을 위해 간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간호협회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실습 과정에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병원과 학과차원에서의 전략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 옹호, 직업가치 및 인간중심돌봄과의 미흡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인간중심돌봄 영향요인이 대상자 옹호 및 직업가치라는 것을 확인한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일부지역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연구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상자 옹호 및 직업가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 References

[1] H. S. Jun. "Concept Analysis of Patient Righ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31, No. 1,

pp. 89-99, 2019. DOI: <https://doi.org/10.7475/kjan.2019.31.1.89>

[2] K. C. Cho. "Review on the Theory of Nursing Client Advocacy and Its Applications in Child Healthcare",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19, No. 3, pp. 149-58, 2013. DOI: <https://doi.org/10.4094/chnr.2013.19.3.149>

[3] S. Williams, J. Phillips, K. Koyama. "Nurse advocacy: Adopting a health in all policies approach", Online Journal of Issues in Nursing, Vol. 23, No. 3, 2018. DOI: <https://doi.org/10.3912/OJIN.Vol23No03Man01>

[4] M. Abbasinia, F. Ahmadi, A. Kazemnejad. "Patient advocacy in nursing: A concept analysis", Nursing Ethics, Vol. 27, No. 1, pp. 141-51, 2020. DOI: <https://doi.org/10.1177/0969733019832950>

[5] R. G. Hanks, "Development and testing of an instrument to measure protective nursing advocacy", Nursing Ethics, Vol. 17, No. 2, pp. 255-67, 2010. DOI: <https://doi.org/10.1177/0969733009352070>

[6] X. Bu, Y. B. Wu.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instrument: attitude toward patient advocacy",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 31, No. 1, pp. 63-75, 2008. DOI: <https://doi.org/10.1002/nur.20233>

[7] Y. R. Tak, Y. W. Hae, Y. Y. Sun, J. H. Kim,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Person-centered Care Assessment Tool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5, No. 3, pp. 412-419, 2015. DOI: <https://doi.org/10.4040/jkan.2015.45.3.412>

[8] M. K. Flesner. "Person-Centered Ca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in Long-Term Care", Journal of Nursing Care Quality, Vol. 24, NO. 4, pp. 273-276, 2009. DOI: <https://doi.org/10.1097/NCQ.0b013e3181b3e669>

[9] S. Morgan, L. H. Yoder. "A Concept Analysis of Person-Centered Care", Journal of Holistic Nursing, Vol. 30, No. 1, pp. 6-15, 2012. DOI: <https://doi.org/10.1177/0898010111412189>

[10] R. A. Kane, T. Y. Lum, L. J. Cutler, H. B. Degenholtz, T. C. Yu. "Resident Outcomes in Small House Nursing Homes: A Longitudinal Evaluation of the Initial Green House Program",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Vol. 55, No. 6, pp. 832-839, 2007. DOI: <https://doi.org/10.1111/j.1532-5415.2007.01169.x>

[11] T. S. Alharbi, L. E. Olsson, I. Ekman, E. Carlstrom.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Outcome of Hospital Care: After The

- Implementation of Person-Centred Care”,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Medicine*, Vol. 42, No. 1, pp. 104-110, 2014. DOI: <https://doi.org/10.1177/1403494813500593>
- [12] J. Y. Yoon, T. Roberts, J. Barbara, Bowers, J. Y. Lee. “A Review of Person-Centered Care in Nursing Hom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2, No. 3, pp. 729-745, 2012. DOI: <https://www.riss.kr/link?id=A100094645>
- [13]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312-322, 201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14] M. H. Hwang, H. J. Cho, Y. J. Cho, J. W. Ba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meaning of work and experiences of career decision process of university student”,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32, No. 3, pp. 675-699, 2013.
- [15] J. Y. Lee. “The Change of Juvenile’s Work Value”,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5, No. 3, pp. 163-181, 2006.
- [16] D. G. Zytowski. “The concept of work value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Vol. 18, pp. 176-186, 1970. DOI: <https://doi.org/10.1002/j.2164-585X.1970.tb00231.x>
- [17] S. Wollack, J. G. Goodale, J. P. Wijting, P. C. Smith. “Development of the survey of work valu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55, pp. 331-338, 1971. DOI: <https://doi.org/10.1037/h0031531>
- [18] S. Eaton, S. Roberts, B. Turner. “Delivering person centered care in long term conditions”, *British Medical Journal*, Vol. 350, pp. 181, 2015. DOI: <https://doi.org/10.1136/bmj.h181>
- [19] K. J. Kwon, S. Y. Lee, T. J. Park, “Analysis on Elder Abuse of the Korea Elderly Long-term Care Hospital”,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 pp. 553-560,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553>
- [20] M. Kim, H. Le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es on patient advocacy”,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27, NO. 2, pp. 140-148, 2021. DOI: <https://doi.org/10.22650/JKCN.R.2021.27.2.140>
- [21] M. Kim, H. Choi. “ Social influencing factors of clinical nurses’ patient advocacy”,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9, No. 4, pp. 363-373, 2023. DOI: <https://doi.org/10.1111/jkana.2023.29.4.363>
- [22] K. C. Cho. “Review on the theory of nursing client advocacy and its applications in child healthcare”,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19, No. 3, pp. 149-158, 2013. DOI: <http://dx.doi.org/10.4094/chnr.2013.19.3.149>
- [23] S. H. Shin, J. W. Lee, C. T. Kim. “Relationships among nursing students’ motivation to major, career values,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0, pp. 95-107,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0.95>
- [24] Y. Lim, Y. K. Jung, K. A. Sang. “Development Report on Occupational Values Test. Seoul”, Korea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Institute, 2001.
- [25] J. W. Oh, M. R. Kim. “Person-centered Care and Patient Safety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Safety Management Confide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2, NO. 1, pp. 1-13, 2021. <https://doi.org/10.22143/HSS21.12.1.96>
- [26] K. Sjöogren, M. Lindkvist, P. O. Sandman, K. Zingmark, D. Edvardsson.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wedish version of the Person-Centered Care Assessment Tool (P-CAT)”,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Vol. 24, No. 3, pp. 406-415, 2012. DOI: <https://doi.org/10.1017/S104161021100202X>
- [27] T. Martinez, J. Suarez-Alvarez, J. Yanguas, J. Muniz. “Spanish validation of the person-centered care assessment Tool (P-CAT)”, *Aging & Mental Health*, Vol. 20, No. 5, pp. 550-558, 2016. DOI: <https://doi.org/10.1080/13607863.2015.1023768>
- [28] S. Y. Lee, S. B. Je. “The Effect of Career Values and Calling o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1, No. 5, pp. 231-245, 2020.
- [29] B. McCormack, T. McCance. “Person-centred nursing: Theory, models and methods”, Hoboken (NJ): Wiley-Blackwell, pp. 1-208, 2010.
- [30] B. McCormack. “A conceptual framework for person centred practice with older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Vol. 9, NO. 3, pp. 202-209, 2003. DOI: <https://doi.org/10.1046/j.1440-172x.2003.00423.x>
- [31] R. Suhonen, M. Valimaki, H. Leino-Kilpi. “Individualised care from patients’, nurses’ and relatives’ perspective—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 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39,



- pp. 645–654, 2002. DOI: [https://doi.org/10.1016/s0020-7489\(02\)00004-4](https://doi.org/10.1016/s0020-7489(02)00004-4)
- [32] A. Leplege, F. Gzil, M. Cammelli, C. Lefevre, B. Pachoud, I. Ville. “Person-centredness: Conceptu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Vol. 29, pp. 1555–1565, 2007. DOI: <https://doi.org/10.1080/09638280701618661>
- [33] A. L. Kalleberg. “Work values and job rewards: A theory of job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2, NO. 1, pp. 124–143, 1977. DOI: <https://doi.org/10.2307/2117735>